

### 3/4(금) 여호수아 13-15장 믿음의 노장들

옛 세대 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둘입니다.

여호수아와 갈렙, 믿음의 노장들입니다.

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은퇴를 명하십니다(13:1).

12지파 연합군은 거점도시 정복을 마쳤습니다(1-12장).

미 정복 지역은 지파별로 구획을 나눠 정복해 갈 것입니다.

정복할 땅이 남았고 갈렙도 여전히 현역으로 참전 중입니다(14:6-15).

아쉬움과 섭섭함이 들 법 하지만, 그는 즉각 사령관 자리를 내놓습니다.

늘 그랬듯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.

하나님에게는 <다음> 계획이 있으셨습니다.

12지파에 땅을 분배하는 일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.

다양한 사연들과 불만, 여러 견해들이 발생할 것입니다.

권위와 노련함으로 중심을 잡고 일을 처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.

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<조정관>의 자리를 맡기셨습니다.

갈렙은 지파별 정복 전쟁을 앞두고 헤브론을 선택합니다(14:6-15).

헤브론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며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.

갈렙은 12지파들이 남은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

일부러 힘든 지역에 지원하며 솔선수범합니다.

여호수아는 땅 분배에서도 본을 보입니다.

업적으로나 지위로나 연륜으로나 조건이 충분했지만,

여호수아는 자신의 땅을 가장 마지막에 배정합니다(19:49-50, 24:30).

많은 땅 중에서 거칠고 가파른 딤낫 세라를 봇으로 받습니다.

“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

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(민32:12). ”

나는 믿음의 노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?

❶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무릎 끓고 말씀을 청종합니까?

❷ 세상적 경험과 연륜으로 상황을 분석하며 훈수를 두고 있습니까?